

한국과 일본의 보건교육에 관한 비교연구

-초등학교 보건교과서 비교를 중심으로-

이 덕 원

경기 보체초등학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도시화, 정보화 등 사회환경 및 생활환경의 변화, 자연환경의 변화, 핵가족화 등이 아동들의 신체적 활동·놀이문화의 감소, 식생활의 변화, 정신적 부담의 증대, 삭막한 인간관계 등을 초래하였고, 더욱이 가정 및 지역 사회의 교육력을 감소시키는 등 아동의 심신상의 건전한 발육·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아동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문제 외에도, 최근 학교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왕따문제', '학습장애를 포함한 인격장애' 등의 생활지도 관련 문제들도 정신적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각종 학교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보건교육 지도체제의 강화에 따른 적극적인 교육 대응으로 시도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보건교육이란, 학생들이 자신의 건강문제를 스스로 발견하여, 대처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일련의 교육활동이다. 결국,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함과 동시에 행동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건교육은,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서 어떤 과목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이러한 이유로 중요시되어지고 있는 보건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각종 측면에서 연구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 중 한가지는, 교육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교과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방법 중 한가지로 볼 수 있다. 교육목표 달성에 필요 불가결의 요소인 교과서의 중요성은, 보건교육에도 역시 적용된다. 교과서란,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매체임과 동시에 교육 내용을 가르치는 교수, 학습방법의 안내서이기도 하다. 그러한 이유에서, 보건교육의 질과 보건교과서의 질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교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교육을 국가간 비교를 통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국가간의 전체적인 항목의 단순비교에 그치고 있어서, 실제적인 비교가 가능하지 않았던 점과 한국과 일본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신교육과정을 비교해 보는 일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체적인 항목의 양적 비교를 함과 동시에, 교과서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각종 자료와 본문 내용의 차이점을 검토함으로써 질적 비교를 시도해 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보건교과서의 검토를 통해서 양국의 보건교육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며 향후, 보건교육과정의 개발 및 보건교육 내용의 선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2.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의 문제를 설정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교 보건교과서에 대하여 :

- 1) 교과서의 형식은 어떠한가?
- 2) 학년별 단원 구성은 어떠한가?
- 3) 지도내용 항목에 따른 학년별 단원 구성은 어떠한가?
- 4) 교과서의 영역별(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구성은 어떠한가?

3. 연구의 방법

1) 연구분석의 자료

① 한국

-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의 체육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 현행 교육과정
- 학교 교육계획서

② 일본

- 현행 교육과정의 보건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 현행 교육과정
- 학교 교육계획서

표 1. 한국과 일본 보건교과서의 전반적 특징

	한 국	일 본
보건교과서 존재 형태	체육교과서에 보건영역이 포함되어 있음. ◆ 1, 2학년 : 즐거운 생활 (체육, 음악, 미술의 통합교과서 형태) ◆ 3~6학년 : 체육	체육교과서는 없고, 보건교과서만 존재함. (3~6학년)
학년별 보건교과서 존재 형태	3~6학년 4권의 교과서	3·4학년용, 5·6학년용(총 2권)
출판사별 보건교과서 종류	1종(국정 교과서) ◆ 교육인적자원부 - 체육	6종(검정교과서) ◆ 東京書籍 - 新しい保健 ◆ 大日本図書 - たのしい保健 ◆ 光村図書 - 保健(心とからだの深呼吸) ◆ 学習研究社 - みんなの保健 ◆ 文教社 - わたしたちの保健 ◆ 光文書院 - 小學保健
보건교과서 크기	187×257 mm	180×257 mm
교육과정 기술 형태	단계형 교육과정	독립형교육과정
법정 보건수업 시간수	없음	3~4학년 : 2년간 8시간 정도 5~6학년 : 2년간 16시간 정도 합계 : 3~6학년 4년간 24시간 정도

2) 연구 분석의 방법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교 보건교과서에 대해서 :

- ① 교과서의 형식을 비교한다.
- ② 학년별의 단위구성을 분석한다.
- ③ 지도내용항목에 따른 학년별 단원을 분석한다.
- ④ 교과서의 영역별(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구성을 분석한다.

II.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교 보건교과서의 비교

1. 교과서 형식의 비교

한국과 일본의 보건교과서의 전반적인 특징은 <표 1>과 같다.

2. 학년별 단위구성

한국과 일본의 교육과정 기술형태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은 단계형 교육과정을, 일본은 독립형 교육과정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단계형 교육과정이란, 교수학습 내용의 전개에 있어서 저학년은 다양한 주제를 간단하고 쉬운 내용의 학습으로 시작해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년 수준에 맞게 점차 내용을 심화시켜나가는 형태로, 나선형 교육과정 또는 반복형 교육과정이라고도 한다. 반면,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독립형 교육과정은 학년별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의 독립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형태이다. 따라서, 한국의 교과서는 한 개 학년에 여러 가지의 주제를 학습하도록 되어져 있으나, 일본은 학년별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의 주제만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기술 형태의 차이는, 양국의 교과서의 단위구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표 2. 한국과 일본 보건교과서의 학년별 단위 구성

	한 국	일 본
3학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체의 성장과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의 중요성 - 몸의 청결과 건강과의 관계 - 올바른 식생활 태도와 건강과의 관계 - 운동과 건강 2. 질병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를 튼튼히 - 감각기관의 질병 예방(눈, 귀, 피부) -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바람직한 생활 태도 3. 안전한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학교 생활(교실, 복도, 운동장) - 안전한 등교길 - 교통기관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점 - 응급 처치와 구조 4. 여가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의 의미와 중요성 - 여가 활동의 종류(가정, 학교) - 친구들과 나의 관계 - 약의 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상 생활과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 생활의 방법과 건강(식사, 운동, 휴식·수면) - 신체의 청결(몸의 청결, 속옷 갈아입기) - 생활 주변 환경의 정리(실내 공기 및 밝기 조절) -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에서의 각종 조치

	한 국	일 본
4학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의 성장과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의 몸 뼈와 근육 남녀의 신체 체력과 건강 질병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흡기 질병과 예방 순환기 질병과 예방 환경과 건강(공기, 토양, 수질오염과 소음공해의 원인과 예방법) 안전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한 생활(가정에서, 놀이를 할 때, 운동진후) 구급법 여가와 정신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 활용 방법 피로의 원인과 회복 방법 밝게 살아가는 방법 약물의 오용 및 남용 흡연의 피해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신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의 성장(신장 및 체중 등의 발육과 그에 따른 남녀차·개인차) 적절한 발육을 위해서(식사, 운동, 휴식·수면의 중요성) 신체의 변화(변화의 특징과 남녀차·개인차) 사춘기의 신체의 변화(외적 변화, 내적 변화) 사춘기의 정신적 변화
5학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균형 있는 우리 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균형 있는 영양 섭취의 중요성 영양소와 식품 식생활 습관과 체중 체중 조절을 위한 생활 실천 방법 우리가 지키는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선하고 위생적인 식품(선택, 보관, 이용) 식중독(원인, 증상, 예방 방법) 전염병의 종류와 예방법 흡연과 음주의 피해 신나는 여가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 활동의 올바른 선택 여가 활동과 안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과의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발생의 원인(부주의한 행동, 위험한 주변 환경) 학교 및 지역 사회에서의 사고 방지 교통사고의 방지 사고의 구급법 정신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의 발달(감정, 사회성, 사고력) 정신과 신체의 관계 고민, 불안의 대처법
6학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하는 우리 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기의 신체 변화(남녀별, 신체의 외적·내적 변화) 임신과 출산 성폭력의 의미와 대책 우리가 가꾸는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 오염과 건강 환경 오염의 예방법(학교, 가정) 공중 보건 활기차고 즐거운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 생활과 스트레스 약물의 사용과 건강 안전 사고의 예방법과 구급법(여가 활동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의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과 질병 발생의 원인 병원체와 질병 생활습관과 질병 음주의 피해 흡연의 피해 약물 남용의 피해

표 3. 한국과 일본 보건교과서의 지도 내용 항목에 따른 학년별 단위 구성

지도내용 항목	한 국	일 본
생활 습관과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의 중요성(3학년) - 몸의 청결과 건강과의 관계(3학년) - 올바른 식생활 태도와 건강과의 관계(3학년) - 운동과 건강(3학년) - 식생활 습관과 체중(5학년) - 체중 조절을 위한 생활 실천 방법(5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 생활의 방법과 건강(3학년) - 신체의 청결(3학년) - 생활 주변 환경의 정리(3학년)
성장발달과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몸(4학년) - 뼈와 근육(4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의 성장(4학년) - 적절한 발육을 위해서(4학년)
영양과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 있는 영양 섭취의 중요성(5학년) - 영양소와 식품(5학년) 	
질병의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를 튼튼히(3학년) - 감각기관의 질병 예방(눈, 귀, 피부)(3학년) -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바람직한 생활 태도(3학년) - 호흡기 질병과 예방(4학년) - 순환기 질병과 예방(4학년) - 식중독(원인, 증상, 예방 방법)(5학년) - 전염병의 종류와 예방법(5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과 질병 발생의 원인(6학년) - 병원체와 질병(6학년) - 생활습관과 질병(6학년)
약물사용과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의 이용(3학년) - 약물의 오용 및 남용(4학년) - 흡연의 피해(4학년) - 흡연과 음주의 피해(5학년) - 약물의 사용과 건강(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의 피해(6학년) - 흡연의 피해(6학년) - 약물 남용의 피해(6학년)
정신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의 의미와 중요성(3학년) - 여가 활동의 종류(가정, 학교)(3학년) - 친구들과 나의 관계(3학년) - 여가 활용 방법(4학년) - 피로의 원인과 회복 방법(4학년) - 밝게 살아가는 방법(4학년) - 여가 활동의 올바른 선택(5학년) - 현대 생활과 스트레스(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의 발달(감정, 사회성, 사고력)(5학년) - 정신과 신체의 관계(5학년) - 고민, 불안의 대처법(5학년)
성과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의 신체(4학년) - 청소년기의 신체 변화(남녀별, 신체의 외적·내적 변화)(6학년) - 임신과 출산(6학년) - 성폭력의 의미와 대책(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의 변화(4학년) (변화의 특징과 남녀차·개인차) - 사춘기의 신체의 변화(4학년) (외적 변화, 내적 변화) - 사춘기의 정신적 변화(4학년)
신체 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력과 건강(4학년) 	
안전한 생활과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학교 생활(교실, 복도, 운동장)(3학년) - 안전한 등교길(3학년) - 교통기관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점(3학년) - 응급 처치와 구조(3학년) - 안전한 생활(가정에서, 놀이를 할 때, 운동 전후)(4학년) - 구급법(4학년) - 여가 활동과 안전(5학년) - 안전 사고의 예방법과 구급법(여가 활동시)(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발생의 원인(5학년)(부주의한 행동, 위험한 주변 환경) - 학교 및 지역 사회에서의 사고 방지(5학년) - 교통사고의 방지(5학년) - 사고의 구급법(5학년)
소비자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하고 위생적인 식품(선택, 보관, 이용)(5학년) 	
지역사회와 환경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과 건강(공기, 토양, 수질오염과 소음공해의 원인과 예방법)(4학년) - 환경 오염과 건강(6학년) - 환경 오염의 예방법(학교, 가정)(6학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 보건(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에서의 각종 조치(3학년)

3. 지도내용 항목에 따른 학년별 단원 구성

한국과 일본의 교육과정을 비교하기 위해서 지도내용을 「생활습관과 건강」 및 「성장 발달과 건강」 등의 12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학년별 단원구성을 조사하여 보았다.

4. 지도내용 항목에 따른 학년별 단원내용의 구체적 비교

교과서 비교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항목의 단순 비교인 양적 비교와 내용의 질적 비교를 병행하여 구체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음의 내용은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각종 자료와 본문 내용의 진술 상의 차이를 기술함으로써 양적 비교와 질적 비교를 병행, 구체화한 것이다.

1) 생활습관과 건강

「생활습관과 건강」 항목에 있어서, 양국의 교과서에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즉, 일상 생활에 있어서의 식사, 운동, 휴식 및 수면 그리고 몸의 청결이 건강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점이 보여진다. 즉, 한국의 경우는 3학년에서 「생활습관과 건강」의 주제를 학습한 후, 5학년에서는 「비만」의 주제로 발전시켜 학습해나가는 단계형 학습을 채택하고 있으며, 「식사 중 예의」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점이 일본의 교과서와 다른 점으로 보여진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생활습관과 건강과의 관계」를 아동들에게 효과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진 및 삽화 등 각종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건강을 위해서는 주변의 생활 환경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2) 성장발달과 건강

「성장발달과 건강」 항목에 있어서, 양국의 교

과서 내용에는 차이가 보여진다.

즉, 한국은 신체에 대한 조사가 주된 내용이다. 성장 발달에 의해서 몸의 각 부분이 올바르게 작용하고, 그로 인해 건강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내용이다. 또한, 일본 교과서에서는 「성장발달과 건강」항목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성장의 과정'과 '적절한 발육을 위한 식사와 운동의 중요성'은 「영양과 건강」 항목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일생에 있어서의 연령별 성장 모습'과 '양호한 성장을 위한 필요 불가결한 요소'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다. 3학년에서 건강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다루어졌던 일상 생활의 식사, 운동, 휴식 및 수면을 4학년에서도 적절한 발육의 필수 요소로서 다루고 있다. 또한, 성장하는 방식에는 개인차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동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3) 영양과 건강

「영양과 건강」의 항목에서는, 양국의 교과서 내용에 차이점이 보여진다.

일본의 경우, 「영양과 건강」의 항목을 별도로 다루지 않고, 4학년에서 '적절한 발육을 위해서'라는 주제로 「성장발달과 건강」의 일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반면, 한국은 「영양과 건강」의 항목을 '균형 있는 영양 섭취의 중요성'과 '영양소와 식품군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두어서, 「성장발달과 건강」 항목과는 별도로 다루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 한 점이다.

4) 질병의 예방

「질병의 예방」의 항목에서, 양국의 교과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즉, 아동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식중독, 전염병, 치아 및 감각기관의 질병 등의 원인과 예방법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내용이 있다. 치아 건강에

좋지 않은 나쁜 습관, 귀의 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생활 습관, 피부의 건강 등에 관한 내용이 그것이다. 반면, 일본의 교과서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결핵균 등의 각종 병원체의 확대 사진의 제시, AIDS에 관한 정확한 지식 제공, 충치와 치주염의 진행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치아 건강을 위한 80·20운동의 소개이다.

5) 약물 사용과 건강

「약물사용과 건강」의 항목에서, 양국의 교과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즉, 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의 피해가 주된 내용이다. 요즘 세계 각국의 동향은 약물 오남용을 시작하는 연령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약물사용과 건강」의 항목을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양국에 있어서 차이점을 살펴보면, 한국은 현재 청소년의 약물남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전학년에게 걸쳐 학습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6학년에서만 다루고 있는 실정이지만, 삽화 및 사진뿐만 아니라 통계표 등의 각종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6) 정신 건강

「정신 건강」의 항목에서, 양국의 교과서 내용은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과학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정신 건강은 미래에도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각종 자료를 사용하여 정신 건강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나, 주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여가활동을 정신건강 증진의 중요한 방법으로 여겨, 3학년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밖에도 친구와의 관계, 피로 회복, 밝게 살아가는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등을 정신 건강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다루고 있다.

한편, 일본의 교과서는 한국에 비해서 원리적

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즉, 정신의 발달, 정신과 신체의 관계에 대해서 과학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고민과 불안의 대처 방법과 같은 실천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 것은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7) 성과 건강

「성과 건강」의 항목에서, 양국의 교과서 내용은 사춘기 아동의 신체의 변화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과 건강」이 학습되어지는 학년과 그 내용에는 각각의 특징이 있다.

한국에서는 4학년부턴 성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본격적인 이론 학습은 6학년이 되어야 시작된다. 그 내용에 있어서 「임신과 출산」, 「성폭력」은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적인 항목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성폭력의 대상연령이 초등학교생으로까지 내려감에 따라 초등학교의 교과서에 등장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한편, 일본에서는 4학년에서부터 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 내용에 있어서 사춘기의 정신의 변화, 사춘기 신체 변화의 개인차를 다루고 있는 것은 특징적인 면이다.

8) 신체적성

한국의 체육 교과서는 3학년부턴 사용되며, 그 내용은 크게 실기편과 보전편으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5·6학년이 되면 체력활동편이 추가되어 3개의 영역으로 대별된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체력과 건강」의 단원이 보전편에서는 4학년에서만 다루어지고 있으나, 5·6학년의 체력활동편에서 심도있게 다루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많은 양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신체적성」의 항목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다.

9) 안전생활과 건강

「안전생활과 건강」의 항목에서, 양국의 교과서

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안전사고의 문제는 성인에게도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양국의 교과서는 학교와 지역에서의 안전, 응급처치, 교통사고 예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여러 가지 자료를 사용하여 안전생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비슷하지만, 안전생활이라는 주제에로의 접근 방법이 상이하다.

한국의 경우, 장면별 안전생활을 다루고 있다. 즉, 학교에서, 가정에서, 통학로에서, 교통기관 이용시, 놀 때, 운동할 때, 여가활동시의 안전과 응급처치에 대한 것이다. 또한, 자외선의 피해, 스포츠경기 관람시의 안전을 다루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부상의 원인을 사람의 행동과 주위환경으로 나누어 보고, 부상의 방지를 위해서는 사람의 안전한 행동 뿐만 아니라 위험한 주위환경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람의 안전 행동을 주로 강조하는 한국과 비교하여 볼 때, 주목할 만한 것이다. 또한, 자연재해로부터의 피난장소와 시설, 아동보호 110번지를 다루고 있는 것은 일본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10) 소비자 건강

「소비자 건강」의 항목은 일본의 보건교과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며, 한국에서도 5학년에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내용이 미약하다.

건강 생활을 위해서는 위생적인 음식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때문에 식품 상태를 잘 관찰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11) 지역사회와 환경 보전

「지역사회와 환경 보전」의 항목은 일본의 보건교과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한편, 한국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4학년과 6학년에서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은 학교와 가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오염의 원인과 피해를 알아보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12) 기타

양국의 교과서에서는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일본에서는 학교 단위에서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소개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학교 단위를 포함하여 공중보건에 까지 학습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5. 교과서의 영역별(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구성

보건교육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인간을 육성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따라서 보건교육에는 이 세 가지의 영역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실제 보건교과서 내용의 영역별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Ⅲ. 결과의 분석

1. 한국과 일본의 학년별·지도내용 항목별 보건교육 내용의 분석

양국의 보건교과서 비교를 위하여 6종의 기준(단원 수, 페이지 수, 삽화 및 만화 수, 사진 수, 통계표 및 각종 도표의 수, 탐구문제 및 체크리스트의 수)을 사용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양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단원 수 및 페이지 수를 조사하여 보았고, 교과서 내용의 질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삽화 수, 사진 수, 통계표 수, 탐구문제 수를 정리하여 보았다. 또한, 일본의 교과서는 6종의 교과서 전부를 비교의 대상으로 하였다.

표 4. 한국과 일본 보건교과서 내용의 영역별 구성

영역	학년	한국	일본	
신체적 영역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의 중요성 - 몸의 청결과 건강과의 관계 - 올바른 식생활 태도와 건강과의 관계 - 운동과 건강 - 이를 틈틈히 - 감각기관의 질병 예방(눈, 귀, 피부) -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바람직한 생활 태도 - 안전한 학교 생활(교실, 복도, 운동장) - 안전한 등교길 - 응급 처치와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 생활의 방법과 건강(식사, 운동, 휴식·수면) - 신체의 청결(몸의 청결, 속옷 갈아입기) - 생활 주변 환경의 정리(실내 공기 및 밝기 조절)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몸 - 뼈와 근육 - 남녀의 신체 - 체력과 건강 - 호흡기 질병과 예방 - 순환기 질병과 예방 - 안전한 생활(가정에서, 놀이할 때, 운동 전후) - 구급법 - 흡연의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의 성장(신장 및 체중 등의 발육과 그에 따른 남녀차·개인차) - 적절한 발육을 위해서(식사, 운동, 휴식·수면의 중요성) - 신체의 변화(변화의 특징과 남녀차·개인차) - 사춘기의 신체 변화(외적 변화, 내적 변화)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 있는 영양 섭취의 중요성 - 영양소와 식품 - 식생활 습관과 체중 - 체중 조절을 위한 생활 실천 방법 - 신선하고 위생적인 식품(선택, 보관, 이용) - 식중독(원인, 증상, 예방 방법) - 전염병의 종류와 예방법 - 흡연과 음주의 피해 - 여가 활동과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발생의 원인(부주의한 행동, 위험한 주변 환경) - 사고의 구급법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의 신체 변화(남녀별, 신체의 외적·내적 변화) - 임신과 출산 - 성폭력의 의미와 대책 - 안전 사고의 예방법과 구급법(여가 활동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과 질병 발생의 원인 - 병원체와 질병 - 생활습관과 질병 - 흡연과 음주의 피해 	
	정신적 영역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의 의미와 중요성 - 여가 활동의 종류(가정, 학교) - 친구들과 나의 관계 - 약의 이용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 활용 방법 - 피로의 원인과 회복 방법 - 밝게 살아가는 방법 - 약물의 오용 및 남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춘기의 정신적 변화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 활동의 올바른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의 발달(감정, 사회성, 사고력) - 정신과 신체의 관계 - 고민, 불안의 대처법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생활과 스트레스 - 약물의 사용과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물 남용의 피해 	
사회적 영역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기관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에서의 각종 조치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과 건강(공기, 토양, 수질오염과 소음 공해의 원인과 예방법)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지역 사회에서의 사고 방지 - 교통사고의 방지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오염과 건강 - 환경 오염의 예방법(학교, 가정) - 공중 보건 		

1) 단원 수

보건교과서 비교를 통하여 양국의 보건교육의 실재를 조사해본 결과, 단원 수에 있어서 큰 차이가 보여졌다. 한국은 69개의 단원이 있는데 반하여, 일본은 22~26개의 단원이 존재한다. 그것은 교육과정 기술형태의 차이가 주된 원인으로 보여진다. 즉, 한국은 1개 학년에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면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점 수준을 높여 가는 단계형 교육과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단원의 수가 많아진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안전생활과 건강」, 「정신 건강」, 「약물의 사용과 건강」의 주제를 특히 중요하게 여겨, 전학년에 걸쳐 심화학습을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교육과정 기술형태의 특성상, 1개 학년에 1~2개의 주제만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원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각 지도내용에 단원수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신체적성」, 「소비자 건강」, 「지역사회와 환경 보전」의 주제는 다루고 있지 않다.

2) 페이지 수

보건교과서 비교를 통하여 양국의 보건교육의 실재를 조사해본 결과, 페이지 수에 있어서는 단원 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국의 교육과정 기술형태의 차이로 인해서 큰 차이가 있었다. 한국은 106페이지를 할당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본의 경우는 56~64 페이지 밖에 안되었다.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안전생활과 건강」의 주제가 19페이지로 전체의 17.9%를 차지하고 있고, 「정신 건강」 15페이지, 「질병 예방」 15페이지의 순이다. 특히, 「약물 사용과 건강」의 주제는 전학년에 걸쳐서 심화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페이지 수에 있어서는 불과 9페이지 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는 「안전생활과 건강」(10~14페이지), 「질병 예방」(10~15페이지)의 주제가 다른

주제에 비해서 많은 페이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양국은 「안전생활과 건강」의 주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삽화 및 만화의 수

삽화 및 만화의 수에 있어서는 양국의 교육과정의 기술형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보여지지 않았다. 한국은 101점인데 반하여 일본은 54~94점이다. 그렇지만 오히려 페이지 당 삽화 및 만화의 수로 보자면, 일본의 경우가 한국보다 다소 많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설명식 보다는 아동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삽화 및 만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바람직한 교과서의 형태는 문자와 문장 일색을 피하고, 정형화된 형태 또는 지면 활용 형식을 과감히 탈피하는 독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의 경우가 한국보다 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교과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교과서의 주제별 삽화 및 만화 수를 보면, 「안전생활과 건강」이 24점으로 전체의 23.8%를 차지하고 있고, 「질병 예방」 16점, 「정신 건강」 12점의 순이다. 특히 「약물사용과 건강」의 주제는 전학년에 걸쳐 심화학습을 하고 있으나, 삽화 및 만화 수는 불과 7점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안전생활과 건강」(13~19점), 「질병 예방」(11~23점)의 주제가 다른 주제에 비하여 삽화 및 만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양국은 「안전생활과 건강」의 주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4) 사진 수

사진 수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보여졌다. 양국의 교육과정 기술형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의 경우가 한국보다 그 수에 있어서 더 많았다. 한국은 불과 6점만을 사용하였으나 일본은 16~46점이었다. 그것은 일본의 교과서가 학

생에게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설명식 보다는 아동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한국 교과서의 주제별 사진 수를 보면, 「지역 사회와 환경 보전」의 주제에 3점이 사용되어진 것말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질병 예방」의 주제에 6~12점을 사용하여 가장 많은 사진을 이용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약물사용과 건강」(3~11점), 「안전생활과 건강」(1~8점)의 순이다.

5) 통계표 및 각종 도표의 수

통계표 및 각종 도표의 수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보여졌다. 양국의 교육과정 기술형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의 경우가 한국보다 그 수에 있어서 더 많았다. 한국은 불과 5점만을 사용하였으나 일본은 8~21점이었다. 그것은 일본의 교과서가 학생에게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단순한 설명식 보다는 정확한 자료 제시의 방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한국 교과서의 주제별 사진 수를 보면, 「정신 건강」의 주제에 2점이 사용되어진 것말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안전생활과 건강」의 주제에 3~7점을 사용하여 가장 많은 통계표 및 각종 도표를 이용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질병 예방」(2~5점), 「약물사용과 건강」(1~4점)의 순이다.

6) 탐구문제 및 체크리스트의 수

보건교과서 비교를 통하여 양국의 보건교육의 실재를 조사해본 결과, 탐구문제 및 체크리스트의 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보여지지 않았다. 한국은 32문제였고, 일본은 6~30문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가 페이지 수가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페이지 당 탐구문제 수는 일본의 경우가 다소 많다고 할 수 있다.

한 단원에 몇 개의 탐구문제 및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고 있는 양국은 공히 교육의 장면에서 어

떤 문제에 대한 학생 자신의 문제해결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교육은 특성상, 실천하거나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져 왔던 탐구문제나 연습문제의 일색 보다는 생활 기록표 또는 자기 점검표 등의 체크리스트의 제시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말하자면, 일본의 경우가 보다 많은 생활 기록표와 자기 점검표 등의 체크리스트 제시가 많기 때문에, 수적인 면에서는 양국이 거의 동일하지만, 실질적인 보건교육의 효과 면에서 본다면 일본의 경우가 학생들이 사용하기 쉬운 교과서를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정신 건강」의 주제에 8개의 탐구문제를 사용하여 전체의 2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생활습관과 건강」(7문제), 「안전생활과 건강」(7문제)의 순이다.

한편,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성장발달과 건강」(2~8문제)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생활습관과 건강」(2~6문제), 「정신 건강」(1~6문제)의 순이다.

양국은 공히 「생활습관과 건강」, 「정신 건강」의 주제에 대해서 학생 스스로의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과 일본의 영역별 보건교육 내용의 분석

한국과 일본의 보건교육의 실재를 알아보고자 보건교과서의 비교를 통하여 영역별 보건교육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단원 수, 페이지 수 등의 6종의 기준에서 신체적 영역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정신적 영역, 사회적 영역의 순이었다.

한국의 교과서에서 단원 수를 기준으로 조사해 본 결과, 신체적 영역 62.5%, 정신적 영역 21.7%, 사회적 영역 13.0%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점은 5, 6학년의 영역별 비율이다. 3, 4학년은 전체적인 비율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

내고 있으나, 5학년은 신체적 영역 80.0%, 정신적 영역 20.0%, 사회적 영역 0%이고, 6학년은 신체적 영역 46.7%, 정신적 영역 20.0%, 사회적 영역 33.3%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영역의 보건교육 내용에 있어서, 5학년에서는 전무하였으나, 6학년에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 내용은 「환경오염과 공중보건」이다.

일본의 교과서에서 단원 수를 기준으로 조사해 본 결과, 신체적 영역 60.9~68.2%, 정신적 영역 18.2~26.1%, 사회적 영역 12.5~16.7%로 한국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또한, 페이지 수, 삽화 수, 탐구문제 및 체크리스트의 수에 있어서도 각 영역의 비율은 단원 수의 경우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사진 수, 통계표 수에 있어서는 신체적 영역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정신적 영역보다 사회적 영역의 비율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것은 「교통사고 및 지역사회에서의 사고 방지」 등의 주제를 포함한 사회적 영역의 경우가 사진 및 통계표와 같은 정확한 자료 제시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IV.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학교보건교육을 비교하기 위해서 양국 초등학교의 보건교과서를 조사하였다. 물론, 학교보건교육의 비교를 위해서는 교과서의 비교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학교교육의 질과 교과서의 질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논리를 전제로 하였다.

교과서 비교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는 전체적인 항목의 단순비교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질적비교가 불가능함을 보충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에 사용되었던 각종 자료와 본문에 기술된 학습내용의 차이를 검토하여 질적인 비교를 시도해보았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보건교과서

비교는 양국이 공히 최근에 새롭게 되어지고 있는 신교육과정의 비교라는 점에서 보다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네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교과서 존재 형식의 비교이다. 보건교과서의 존재형식에 있어서 한국은 국정의 체육교과서가 있고, 보건교과서는 그 안에 한 영역으로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은 체육교과서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보건교과서가 독립되어 있으며 6종의 검정교과서가 시중에 나와있다.

둘째, 학년별 단원구성의 비교이다. 한국은 학년별로 3~4단원이 있어서, 전체 학년(3~6학년)으로는 14개 단원과 69개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일본은 학년 별로 1~2 정도의 단원이 있고, 전체 학년(3~6학년)으로는 5개 단원, 24개 소단원 정도이다. 그것은 교육과정의 기술 방식의 차이로 볼 수 있는데, 한국은 단계형 교육과정(나선형 교육과정)을, 일본은 독립형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단계형 교육과정(나선형 교육과정)이란, 동일한 내용을 학년별 수준에 맞도록 낮은 수준으로부터 점차 복잡한 수준으로 반복, 심화해 나가는 형태이다. 반면, 일본의 독립형 교육과정이라 함은, 학년별로 독립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형태이다.

셋째, 지도내용 항목에 따른 학년별 단원구성의 비교이다. 즉, 양국의 교육과정의 내용을 비교하고자, 「생활습관과 건강」, 「성장발달과 건강」 등의 12개의 지도내용 항목을 설정하였고, 그 항목에 포함된 학년별 단원구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양국의 교과서에 사용되어진 각종 자료와 본문에 기술된 학습내용의 차이를 검토함으로써 양적 비교뿐만 아니라 질적인 비교까지도 병행하였다. 올바른 교과서의 비교라고 함은 양적 비교와 질적인 비교가 동시에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교과서의 비교를 통하여 양국의 보건교육의 실재를 조사한 결과, 단원의 수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볼 수 있었다. 한국은 69개 단원인데 반하여, 일본은 22~26개 단원이었다(일본은 6종 교과서이므로 출판사별로 차이를 보임). 이러한

양국의 차이는 교육과정의 기술형태의 차이가 주요 원인이다. 즉, 한국은 1개 학년에 다양한 주제를 설정하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점 수준을 높여나가는 단계형 교육과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단원의 수가 일본에 비해서 많은 것이다. 또한, 「안전생활과 건강」, 「정신건강」, 「약물의 사용과 건강」의 단원은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져 전학년에 걸쳐 학습되어지고 있다. 한편, 일본의 교과서는 교육과정 기술형태의 특성상, 1개 학년에 1~2개 정도의 주제만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원의 수가 적고, 「신체적성」, 「소비자 건강」, 「지역사회와 환경보전」의 영역은 빠져 있다.

페이지 수에 있어서는 단원 수와 마찬가지로 양국의 교육과정 기술형태의 차이로 인하여 상당한 차이가 보여진다. 한국은 전학년(3~6학년)에 10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본은 56~64페이지이다.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안전생활과 건강」의 주제가 19페이지로 전체의 1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신건강」(15페이지), 「질병예방」(15페이지)의 순이다. 그러나, 「약물의 사용과 건강」의 주제는 전학년에 걸쳐서 심화학습 되고 있으나 페이지 할당은 9페이지 정도에 지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교과에서는 「안전생활과 건강」(10~14페이지), 「질병예방」(10~15페이지)의 주제가 다른 주제에 비하여 좀 더 많은 페이지로 학습되어지고 있다. 양국은 「안전생활과 건강」의 주제에 대해서 공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에 실린 삽화 및 만화의 수에 있어서는 페이지 당 숫자가 일본의 경우가 더 많았다. 한국은 전학년에 걸쳐서 101점인데 반하여 일본은 54~99점이 실려 있다. 즉, 페이지 당 삽화 및 만화의 수는 일본의 경우가 한국 보다 더 많았다. 학생들(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설명식보다는 아동의 관심을 끌기 쉬운 삽화 및 만화가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즉, 바람직한 교과서는, 문자와 문장 일색이 아니라 정형화되어진 형태 혹은 지면활용 형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독창

적으로 꾸며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경우가 한국의 경우보다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교과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도내용 항목별 삽화 및 만화의 수를 보면,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안전생활과 건강」이 24점으로 전체의 23.8%를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질병예방」(16점), 「정신건강」(12점)의 순이다. 특히, 「약물사용과 건강」의 주제는 전학년에 걸쳐서 심화 학습되고 있으나, 삽화 및 만화의 수는 불과 7점에 지나지 않아 학생들의 흥미 유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안전생활과 건강」(13~19점), 「질병예방」(11~23점)의 주제가 다른 주제에 비하여 삽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양국은 「안전생활과 건강」의 주제에 대해서 공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의 수에 있어서 양국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다. 양국의 교육과정 기술형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의 경우가 한국보다 더 많았다. 한국은 전학년에 걸친 교과서 게시 사진 수가 불과 6점인데 반하여 일본은 16~48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경우가 교육의 장면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할 때 전통적인 설명식보다는 아동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진 자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도내용 항목별 사진의 수를 보면,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지역사회와 환경보전」에서 3점이 실려있는 것 외에는 대부분 사진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반면,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질병예방」에 사진 자료가 제일 많이 실려져 있고(6~12점), 다음으로는 「약물사용과 건강」(3~11점), 「안전생활과 건강」(1~8점)의 순이다.

통계표의 수에 있어서도 양국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양국의 교육과정 기술형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의 경우가 한국보다 더 많았다. 한국은 전학년에 걸친 교과서 게시 통계표 수가 불과 5점인데 반하여 일본은 8~21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경우가 교육의 장면에서

서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할 때 전통적인 설명식보다는 정확한 자료 제시의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도내용 항목별 사진의 수를 보면,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정신건강」에서 2점이 실려있는 것 외에는 대부분 통계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반면,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안전생활과 건강」에 사진 자료가 제일 많이 실려져 있고 (3~7점), 다음으로는 「질병예방」(2~5점), 「약물사용과 건강」(1~4점)의 순이다.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문제의 수에 있어서는 양국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32문제이고, 일본은 6~30문제이다. 그러나 한국의 교과서가 페이지 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페이지 당 문제 수는 일본의 경우가 다소 많지만 유의한 차이는 보여지지 않았다. 즉, 양국은 공히 교육의 장면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교육은 특성상, 실천하고 습관화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교과서에서 사용되어졌던 탐구문제 또는 연습문제 대신 생활기록표 혹은 자기점검표 등의 체크리스트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의 경우가 한국보다 생활기록표 및 자기점검표 등의 체크리스트 형식의 제시가 많기 때문에, 수적인 면에서는 양국이 비슷하다고 보여지지만 질적인 비교를 하자면 일본의 교과서가 바람직한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도내용 항목별 탐구문제 수를 보면,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정신건강」에서 8개의 탐구문제가 실려있어서 25.0%를 차지하고 있고, 「생활습관과 건강」(7문항), 「안전생활과 건강」(7문항)의 순이다. 한편,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성장발달과 건강」(2~8문항)에 탐구문제가 제일 많이 실려져 있고, 다음으로는 「생활습관과 건강」(2~6문항), 「정신건강」(1~6문항)의 순이다. 양국은 공히, 「생활습관과 건강」, 「정신건강」의 주제에 대해서는 학생 스스로의 자발적 학습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넷째, 교과서의 영역별 분포의 비교이다. 양국은 공히 단원 수, 페이지 수 등의 6개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여 볼 때 신체적 영역이 가장 많고, 정신적 영역, 사회적 영역의 순이다. 즉,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단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신체적 영역이 65.2%, 정신적 영역이 21.7%, 사회적 영역이 13.0%이고, 일본은 신체적 영역 60.9%~68.2%, 정신적 영역 18.2%~26.1%, 사회적 영역 12.5%~16.7%으로 한국과 흡사한 비율이다. 또한, 페이지 수, 삽화, 탐구문제의 수에서도 각 영역의 비율은 단원의 수의 경우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사진, 통계표의 수에서는 정신적 영역보다 사회적 영역이 평균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교통사고 및 지역사회에서의 사고방지 등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 영역이 사진 및 통계표와 같은 정확한 자료의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이상에서 한국과 일본 초등학교의 보건교과서 비교를 통하여 보건교육의 실재를 살펴보았다. 양국의 보건교육의 현실은 닮은 점과 상이한 점이 공존해 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양국이 가지고 있는 보건교육의 문제점은 충분하지 못한 보건수업 시간 수에 있다 (일본은 3~6학년의 4년간 24단위시간 정도이고, 한국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현재의 시간수로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학습량을 소화해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학습의 효과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보건교과를 독립시켜 충분한 보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소극적인 방법일 수 있겠지만, 보건교과서의 학습내용을 축소하는 것이다. 수업 시간 수에 비해 교과서의 내용이 너무 많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방법일 것이다.

보건교육은 체육교과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짐과 동시에 타 교과에서도 건강과 안전에 관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특별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양국의 보건교육비교가 완전한 것이 되려면 교과서 비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전반을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교과서 비교에 그치고 말았다. 후속연구에서의 시도를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1. 교육부. 체육과 교육과정, 1997.
2. 교육인적자원부. 체육, 2002.
3. 박영수 외 7인. 초등학교 보건교육과정 발 연구. 청주: 한국교원대학교 학교보건·체육 연구소, 1996.
4. 東京書籍. 新しい保健, 2002.
5. 大日本図書. たのしい保健, 2002.
6. 光村図書. 保健(心とからだの深呼吸), 2002.
7. 学習研究社. みんなの保健, 2002.
8. 文教社. わたしたちの保健, 2002.
9. 光文書院. 小學保健, 2002.
10. 文部省. 小學校學習指導要領, 1998.
11. 文部省. 小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體育編, 1999.